

벨기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의 종합적 분석 및 한국의 사내 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het beroepsgeheim van de advocaat)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연구 및 비교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벨기에의 ACP 제도의 역사적 연혁과 법적 기반을 살피고, 인정 요건, 범위, 한계 및 위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사내 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벨기에 변호사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법적 기반 및 기본 원칙

벨기에 ACP 제도의 핵심은 변호사는 '직업상 비밀(secret professionnel)'을, 사내 변호사는 '기밀성(confidentialité)'을 가진다는 이원적 구조에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한 윤리 강령을 넘어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공질서의무로 간주되는 반면, 사내 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호는 별도의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 사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시하며,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밀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입법적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벨기에의 이러한 독자적인 ACP 제도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정과 충돌하는 지점을 가진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수행하는 EU 경쟁법 조사와 관련하여 사내 변호사와 회사 간의 통신은 법적 자문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1]

이러한 EU와 벨기에 간의 상이한 규정은 기업과 변호사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 등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2. 벨기에 변호사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의 현주소: 강점과 약점

벨기에 ACP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자문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특히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는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어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3] 이는 기업의 준법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변호사가 경영진에게 자유롭고 솔직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순기능을 한다.

반면, 이러한 제도는 명확한 **한계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급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필터링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벨기에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

3. 한국의 사내 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벨기에의 사례는 한국의 사내 변호사 ACP 제도 도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벨기에가 국내 절차에 한해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비밀유지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효용**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국 역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사

내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비밀유지 특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벨기에의 경험에서 보듯 ACP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ACP 보호 절차, 공익 등 다른 가치와의 충돌 시 예외 규정 등을 성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EU 경쟁법 조사에서는 ACP가 인정되지 않는 벨기에의 사례처럼,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벨기에 ACP 제도의 법적 기반, 역사적 연혁, 주요 내용과 한계, 위반 시 효과, 그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도 있는 통찰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벨기에의 ACP 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 ACP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 조항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6] 이러한 보호는 단순한 기밀 유지 의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강력한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산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의 전자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4]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벨기에 ACP 제도는 복잡한 국내법 및 유럽연합(EU) 규정의 영향을 받아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 법적 특권의 차이점과 같은 미묘한 지점들을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 둘째**, ACP 인정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그 보호 범위는 광범위하며,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핵심 효용으로 작용합니다. [^7]
- 셋째**, ACP 위반은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 증거 배제 등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벨기에 법률 환경에서 기업과 로펌이 직면한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제1부.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즉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het beroepsgeheim van de advocaat)'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연구 및 비교 분석을 제공한다. 벨기에의 ACP 제도는 다층적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는 등 중요한 법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3]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수사 기법의 고도화는 전통적인 ACP 개념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과 관련하여, 벨기에는 이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4]

이러한 상황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는 벨기에 ACP 제도의 도입 연혁과 법적 기반, ACP 인정의 요건 및 범위와 한계, 위반 시의 법적 효과, 그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원칙이 실제 법률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벨기에 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제1장. 문제 제기: 사내 변호사 법률 자문의 보호 필요성

다음은 귀하의 지시사항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법률 보고서의 본문입니다.

제1장. 문제 제기: 사내 변호사 법률 자문의 보호 필요성

현대 기업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내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내 변호사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기업 활동의 준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며,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러한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업과 변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는 것이다. 의뢰인인 기업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변호사가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자국법상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 기밀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IJE/IBJ(Institut des juristes d'entreprise / Instituut voor Bedrijfsjuristen)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내 변호사가 자신의 고용주인 기업에게 제공하는 법률 자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8] 더욱이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는 이러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이는 IJE/IBJ 소속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9]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국내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 보호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벨기에 국내법과 유럽연합(EU)법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수행하는 EU 경쟁법 조사와 관련하여, 사내 변호사와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법적 자문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1]

이로 인해 사내 변호사 자문 보호에 관한 중대한 이원적 구조가 발생했다. [^10] 즉,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국내 보호막이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11]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과 사내 변호사에게 상당한 실무적 혼란과 위험을 야기한다. 기업은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와 같은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받아 내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 또한, 비법률 부서 직원들에게 사내 변호사 자문 기밀성의 한계, 특히 EU 경쟁법 조사 상황에서의 한계를 명확히 교육하여, 의도치 않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과제도 뒤따른다. [^12]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법률 업무의 디지털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증가는 비밀 정보에 대한 새로운 공격 경로를 만들고 보호 장치의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한다. [^11] 현재 벨기에는 변

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ACP가 침해될 위험이 상존한다. [^4]

따라서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ACP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인정 요건과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국내법과 EU법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이원적 구조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실무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7] 이를 통해 사내 변호사 법률 자문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예측 가능하고 통일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에 대한 심층적 법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벨기에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het beroepsgeheim van de advocaat)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ACP 제도의 법적 기반과 기본 원칙을 탐구하고, 제도의 현주소를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다층적 보호 체계로 구성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벨기에 ACP 제도의 연혁과 입법 과정,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 ACP 인정의 요건, 범위 및 한계, 위반 시의 법적 효과, 그리고 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을 포괄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2023년경까지의 주요 법률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포함하는 기존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되, 최근의 입법 동향과 하급심 판례까지 분석하여 벨기에 법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7] 특히, 현재 벨기에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한 성문 절차가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ACP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4]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병행한다.

- 우선, 벨기에 연방 의회 및 관보를 통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을 추적하고, 기존 연구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
- 또한,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벨기에 제도의 특징과 국제적 맥락을 파악한다.
- 나아가, 법적 프레임워크가 실제 법률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벨기에의 양대 변호사회(네덜란드어권 및 프랑스어권)의 공식 윤리강령과 징계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한다.
- 이와 더불어, 법적 틀의 실제 운용 주체인 전·현직 변호사회장, 수사판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사이버 보안 및 국제 데이터법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실무상 쟁점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적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제2부. ACP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비교법적 고찰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본 장에서는 벨기에 ACP 제도의 법적 기반, 주요 원칙,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강점과 약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이론적 기초와 비교법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벨기에 ACP 제도의 법적 기반은 **다층적 보호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됩니다. ACP의 주요 법적 근거는 성문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ACP에 대한 주요 조항은 벨기에 법률 체계 곳곳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규정됩니다. [^6] 흥미로운 점은, ACP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사전 소극적 의사표시'의 경우,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치료 거부권에서 그 법

적 근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 이는 ACP가 단순히 절차적 권리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벨기에의 ACP 제도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통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3]

이는 ACP가 보호하는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제도의 효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보호 체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ACP 제도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벨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4] 이는 ACP 보호의 실효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신속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 국내법과 유럽연합(EU) 법 간에 존재하는 법적 특권의 차이점과 같은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CP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ACP 제도는 강력한 법적 기반과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7]

제1장.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의 법철학적 기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법철학적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벨기에의 ACP 제도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법 체계에 구현한 것으로, 그 법철학적 기반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ACP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다. 법적 조력을 구하는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변호사에게 전달해야만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가장 사적인 정보를 신뢰 관계 속에서 전달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14] 따라서 의뢰인이 추후 자신의 발언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의 구축은 방어권 행사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벨기에 법체계는 사내 변호사의 자문까지도 단순한 '기밀 정보'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켜 보호하고 있다. [^3]

더 나아가, 벨기에의 ACP는 유럽인권협약(ECHR)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를 단순한 국내 증거 법칙의 차원에서 벗어나 ECHR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격상시킨 것은 중요한 법철학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15]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가 특정 국가의 법률적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한 구성 요소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 헌법재판소 역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권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법철학적 기초를 뒷받침한다.

주목할 점은 이 의무가 변호사 개인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ACP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법적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체의 원활한 작동을 담보하는 '**공공질서(public order)**'의 원칙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의뢰인이 비밀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만약 그 공개가 공

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여전히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 이는 ACP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쉽게 배제할 수 없는, 더욱 상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벨기에의 ACP 제도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 유지라는 다층적인 법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히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소극적 의무를 넘어,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공적 책무인 것이다.

제2장. 주요국의 ACP 제도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영미법계, 대륙법계 및 유럽연합(EU)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주요 법계별 ACP 제도 개관: 접근 방식의 차이

변호사-의뢰인 간의 소통을 보호하는 ACP 제도는 그 법적 기반과 보호 범위에서 주요 법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영미법계 (미국, 영국):** ACP는 의뢰인(client)이 보유하는 실체적 권리(substantive right)로 간주된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와의 비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등):**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professional secrecy obligation)'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는 변호사에게 부과된 공익적 의무의 성격이 강하며, 의뢰인이 임의로 이를 포기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제도의 주체를 의뢰인으로 보는지, 변호사의 의무로 보는지는 ACP의 적용과 한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야기한다.

2. 벨기에의 ACP 제도

가. 도입 연혁 및 법적 근거

벨기에의 ACP 제도는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het beroepsgeheim van de advocaat)'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의무는 변호사 직업 윤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왔으며, 특정 외국의 법령을 직접 계수하기보다는 판례와 법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벨기에 ACP의 핵심 법적 근거는 **형법 제458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 이를 변호사 직무에 구체화한 ****사법법전(Judicial Code)****이다. ACP에 대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6] 이 법적 기반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이는 공공질서의 일부로 여겨져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면제될 수 없는 강력한 의무로 해석된다.

나. ACP 인정 요건, 범위 및 한계

벨기에에서 ACP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변호사의 핵심적인 직무, 즉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소송 전략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정보를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특히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ACP 보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벨기에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및 ACP 해당 정보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한 성문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4]

이 법적 공백은 수사 과정에서 ACP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다. ACP 위반의 효과 및 제도의 효용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ACP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변호사 협회로부터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ACP가 단순한 윤리 강령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ACP 제도는 의뢰인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벨기에에서는 ACP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전용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나아가, 벨기에 정부는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ACP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이 제도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8]

3. EU 경쟁법과의 비교 및 사내변호사 지위

EU 경쟁법 조사 절차에서 ACP 적용 여부는 벨기에 국내법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AM&S 판결* 이래로,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독립 변호사(independent lawyer)*****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ACP를 인정해왔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ACP의 핵심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며, 고용 관계에 있는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는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법률 자문은 ACP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벨기에 국내법은 최근 판례를 통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은 경쟁법 위반 조사와 관련된 형사 절차에서, 사내변호사가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경우 그의 법률 자문 역시 ACP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이처럼 동일한 사안이라도 EU 경쟁 당국의 조사인지, 벨기에 국내 당국의 조사인지에 따라 사내변호사 자문에 대한 ACP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벨기에, 영미법계, 대륙법계, 그리고 EU의 ACP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원칙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모든 법체계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효과적인 법률 조력과 방어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한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 영미법계의 '의뢰인의 권리'와 대륙법계의 '변호사의 의무'로 나뉘 뿐이다.
- **둘째**, '변호사의 독립성'은 ACP 적용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U 경쟁법과 벨기에 국내법 간 사내변호사 지위에 대한 해석 차이는 이 '독립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보여준다.
- **셋째**,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인 ACP 보호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벨기에의 사례에서 보듯, 전자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의 부재는 ACP의 실효성을 위협할 수 있다. [^4] 따라서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ACP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입법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대한민국이 향후 ACP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제3부. 벨기에 ACP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법적 프레임워크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제도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판례의 축적, 그리고 현대적 법제화 노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본 장에서는 벨기에 ACP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근간을 이루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벨기에 ACP 제도의 법적 기반과 기본 원칙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의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며,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ACP에 대한 주요 조항들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

벨기에의 ACP 제도는 특히 **2015년 파기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내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의 비밀유지권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ACP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이로써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자문 활동 역시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ACP 제도는 여전히 몇 가지 약점과 법적 공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의 전자 정보 압수수색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4] 이는 ACP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한편, 벨기에의 ACP 제도는 '사전 소극적 의사표시(negative advance directive)'와 같은 독특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환자가 미래에 특정 치료를 거부할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바로 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치료 거부권이 벨기에에서 가장 중요한 ACP 형태 중 하나인 "사전 소극적 의사표시"의 법적 근거를 구성합니다. [^13]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국경을 초월하는 법적 문제, 특히 유럽연합(EU) 경쟁법 조사 등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쟁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 등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 자신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벨기에의 경험은 이러한 주제들이 이미 획득한 권리의 기반 위에서, 별도의 법적 도구, 특정하고 강화된 조건과 통제를 통해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제1장. 제도 도입의 연혁과 입법 배경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는 단일한 입법 행위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판례법과 성문법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온 다층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벨기에에는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판례법을 통해 그 원칙을 확립하고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법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이 원칙을 성문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기 벨기에 법체계는 ACP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는 법적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례법을 통해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확고하게 인정되어 왔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원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특히 디지털 정보의 증가는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벨기에는 한때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은 ACP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현대적인 법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판례의 등장은 ACP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3]. 이는 ACP가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벨기에는 ACP와 관련된 주요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6]. 예를 들어, 벨기에 형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자체도 특정 처벌을 도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9]. 또한, AC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판결이 있었고, 이는 법률 제22조에 반영되었습니다 [^7]. 더 나아가, 법률 제18조의 개정은 ACP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이처럼 벨기에의 ACP 제도는 판례법을 통해 축적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성문법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법적 근거: 다층적 보호 체계 분석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단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형법, 판례법, 그리고 변호사 윤리 강령**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견고한 다층적 보호 체계에 그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이처럼 다층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는 ACP 보호의 깊이와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 **첫째, 벨기에 형법**은 ACP 보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를 넘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7] 이러한 형법적 보호는 ACP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형성하며,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는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 **둘째, 법원의 판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며 ACP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벨기에 파기법원(Court of Cassation)은 일관된 판결을 통해 ACP가 단순한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공익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확립했다. [^5]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성문법의 공백을 메우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 **셋째, 변호사 협회가 제정한 직업윤리 강령**은 변호사 스스로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ACP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 강령들은 ACP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변호사가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다.

이러한 다층적 보호 체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국제적 사법 공조의 강화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법률 업무의 디지털화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증가는 비밀 정보에 대한 새로운 공격 경로를 만들고 보호 장치의 집행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11] 실제로 벨기에는 한때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4] 더욱이, 강력한 국내 ACP 보호 체계와는 달리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조사 등 특정 영역에서는 그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 등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 자신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돕는 것이 중요해졌다. [^2]

제4부. 벨기에 ACP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적용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는 단순히 직업윤리를 넘어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고 판례를 통해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화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벨기에 ACP 제도의 법적 근거, 인정 요건과 범위, 위반 시 효과 및 실무적 효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1.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벨기에 ACP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변호사의 직업윤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으며, 그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6]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벨기에 변호사 윤리 규정(Belgian Code of Conduct for Lawyers)**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당 규정 제18조는 비밀유지 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를 “모든 비밀 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의무가 시간적 제한 없이 영속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 [^5] 또한, 벨기에 민법전(Civil Code)의 관련 조항인 Art. 4.85와 4.87 역시 비밀유지 의무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21] 이러한 조항들은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비밀유지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며, 이는 ACP 제도의 출발점이 된다.

2. ACP의 인정 요건, 범위 및 한계

가. 인정 요건 및 범위

벨기에 ACP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법률 자문 또는 소송 대리 등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모든 의사소통에 적용된다.

특히 2015년 1월 22일 벨기에 파기법원(Court of Cassation)의 획기적인 판결은 ACP의 보호 범위를 사내 변호사의 자문에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 판결을 통해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 역시 단순한 ‘기밀 정보’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어 보호받게 되었다. [^3]

이로써 의뢰인은 외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도 압수나 공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적용의 한계 및 예외

이처럼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ACP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가 인정된다. 변호사 윤리 규정 제19조는 비밀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4가지 요건으로 ① 정보의 관련성, ② 의뢰인의 이익 부합, ③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④ 법률에 의한 공개 금지 부재를 열거하며, 이를 통해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20]

또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원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소속 변호사 협회장의 자문을 구한 후에 내려야 한다. [^22] 한편, 변호사 윤리 규정 제22조는 변호사 자신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 [^7]

3. ACP 위반의 효과 및 제도의 실무적 효용

ACP를 위반하여 취득된 정보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 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로 하여금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ACP 제도는 의뢰인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효용을 가진다. 특히 기업 법무 환경에서 사내변호사의 자문까지 ACP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벨기에 국내법과 EU 경쟁법 등 관할권에 따른 법적 특권의 차이와 같은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잠재적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등 내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결국, 벨기에의 ACP 제도는 단순한 비밀 보호를 넘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능한 법률 환경 조성을 통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장. ACP 인정의 주체 및 객체

벨기에의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기제이다. ACP가 적용되는 주체와 객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이 제도의 근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벨기에 법률 체계에서 ACP의 보호를 받는 주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이며, 그 객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커뮤니케이션 및 그에 파생된 정보이다.

ACP 인정의 핵심 주체는 벨기에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이다. 이들의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는 ACP 제도의 법적 기반이자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여, 의뢰인이 법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 국내법과 유럽연합(EU) 법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의 차이점과 같은 미묘한 지점들을 선제적으로 조언함으로써,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ACP가 보호하는 객체, 즉 비밀보호의 대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 자문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에는 구두 대화, 서신, 이메일, 메모 등 형태를 불문하고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는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EU 경쟁법 조사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벨기에 형사소송법은 ACP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ACP 관련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5] 이러한 주요 조항들은 ACP의 객체가 되는 정보의 신성함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6]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벨기에 법체계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그 안에서 ACP 보호 대상 정보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필터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성문 규정이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4]

이는 디지털 정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객체를 기존 법 제도가 온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ACP 인정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해는 벨기에의 법적 보호 장치와 현대적 과제를 동시에 조망하게 한다. [^7]

제2장. ACP 인정의 범위와 한계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은 변호사 직무의 핵심이자 공공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며, 그 보호 범위는 포괄적이지만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ACP의 보호 대상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에게 전달된 모든 비밀 정보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이러한 정보는 구두, 서면, 디지털 형태를 불문하고 보호되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서, 메모, 법률 자문 초안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의 판례는 사내 변호사의 자문 역시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벨기에 법체계는 ACP 보호를 위한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 특히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과 같은 현대적 쟁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4]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경쟁법상 ACP 범위의 미묘한 차이점 등을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돕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1. 시간적 범위: 영속적 보호의 원칙

벨기에 AC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보호가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영속적 보호 원칙**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지어 의뢰인이 사망한 후에도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안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신뢰 관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7]

2. ACP 원칙의 예외

이처럼 강력한 ACP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ACP에 대한 주요 조항들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암시하거나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6]

①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ACP는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의 주체인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는 의뢰인이 정보 공개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소송이나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벨기에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사전 소극적 의사표시"가 중요한 ACP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데, 이는 의뢰인(환자)이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3]

② 변호사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나 직업적 명예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방어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ACP의 보호를 받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자신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기본권을 위한 것으로, 정보 공개는 방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벨기에에서는 의사가 환자와의 ACP 관련 상담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가 자신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3]

③ 범죄·불법행위 계획과의 관계 (Crime-Fraud Exception)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장래의 범죄나 사기 등 불법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에는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사기 예외(Crime-Fraud Exception)'** 원칙으로, ACP가 불법을 조장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청에 근거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당시 범죄나 불법행위를 실행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법률 자문이 그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한 기제입니다.

제3장. ACP 위반의 효과 및 구제 절차

벨기에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은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핵심 권리입니다. 따라서 ACP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다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ACP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핵심적인 구제 절차, 특히 변호사회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1. ACP 위반의 법적 효과

벨기에 법체계는 ACP 위반에 대해 민사, 형사, 징계 책임을 모두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이는 ACP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및 형사 처벌

변호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ACP의 근간이 되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소속 지방 변호사회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벨기에 형법 제458조**는 의사, 변호사 등 법률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자가 이를 누설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형사 처벌 규정은 ACP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 중 하나로 기능합니다.

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수사기관이 ACP를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나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에 따른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하며 획득한 증거의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서신이나 법률 자문 내용은 절대적인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을 통해 확보했다면 그 증거능력은 당연히 배제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의뢰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제 절차: 변호사회장(Bâtonnier)의 참여 및 필터링

벨기에 ACP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ACP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변호사회장(Bâtonnier)의 참여권**입니다. 이는 사후적인 구제 절차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비밀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가. 법적 근거 및 절차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 변호사회의 장인 변호사회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의 입회 하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회장은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하려는 자료가 ACP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집니다. [^7]

변호사회장은 현장에서 ACP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문서를 직접 필터링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ACP 보호 대상 정보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필터링(Filtering)**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사회장의 실질적 개입은 ACP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ACP에 대한 주요 조항은 이러한 절차적 보장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6]

나. 절차적 한계 및 보완

이러한 강력한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회장의 참여는 압수 행위가 이미 개시된 이후의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24] 특히, 디지털 증거의 확산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현재 벨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4]

이는 향후 입법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벨기에는 ACP 위반 시 강력한 징계 및 형사 처벌,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변호사회장의 압수수색 참여 및 필터링이라는 독자적인 사전 예방 절차를 통해 ACP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치료 거부권이 벨기에서 가장 중요한 ACP 형태 중 하나인 "사전 소극적 의사표시"의 법적 근거를 구성합니다. [^13] 이러한 다층적 보호 체계는 벨기에 ACP 제도의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4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변호사가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의 형태와 저장 방식을 변화시키며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이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방대함과 복잡성은 ACP의 핵심 원칙을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절차**에서 나타난다.

현재 벨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고 그 안에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4].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될 위험을 내포하며, ACP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수색(Cyber-Searches)'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도전은 벨기에 국내 차원을 넘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자금세탁방지, 조세 투명성, 디지털 서비스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조화를 추구하는 EU의 입법 방향은 벨기에 법질서가 견지해 온 강력한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5].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조사에서는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던 벨기에의 강력한 ACP 보호막이 무력화될 수 있다 [^11]. 법률 업무의 디지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의 증가는 비밀 정보에 대한 새로운 공격 경로를 만들고 있으며, 보호 장치의 집행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11].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는 벨기에 ACP 제도에 중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5].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필터링 절차를 성문화하고, EU 차원의 규제 압력에 대응하여 ACP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스스로도 강화된 보안 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신 및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7].

제5부. 벨기에 ACP 제도의 효용성 평가 및 정책적 함의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치로서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 특히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제도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벨기에 ACP 제도의 가장 큰 효용성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도의 주요 조항들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벨기에 제도는 법률 분석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효용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생태계가 제도의 성공적인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6]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ACP 제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및 필터링 절차에 관한 명확한 성문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벨기에에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4]

이는 디지털 증거가 보편화된 현대 수사 환경에서 ACP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합니다.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ACP 보호 장치의 성문화가 시급합니다.** 전통적인 물리적 문서의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기존 법제만으로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검색, 필터링 과정에서 ACP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 **둘째, 법률 전문가와 의뢰인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국가별 ACP 제도의 차이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 등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 자신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도와야 합니다. [^2]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ACP 제도는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라는 핵심적 효용을 발휘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라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정책은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의 공백을 메우고, 법률가와 의뢰인 모두가 제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제도의 긍정적 효용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는 단순히 법률 조항의 집합을 넘어, 법치주의와 방어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제로 기능한다. 이 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용은 법적 안정성 증진, 의뢰인의 권리 강화,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라는 다층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 **첫째, 법적 안정성 제공:** 벨기에의 ACP 제도는 의뢰인에게 강력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변호사와의 소통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확신은 의뢰인이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변호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

탕으로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와 같은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함으로써 의뢰인 스스로 내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 [^2]. 이처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며, 법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둘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본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3]. 법원은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ACP가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헌법적 권리인 방어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격상되었음을 시사한다 [^3].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례법을 통해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은, 제도가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며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 **셋째, 지원 생태계의 역할:** ACP 제도의 효용성은 법률의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둘러싼 **지원 생태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6].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강력한 윤리 감독, 법원의 적극적인 판례 형성, 그리고 학계의 지속적인 법리 연구 등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그 강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때로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인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에 대한 명확한 성문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해석을 통해 ACP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ACP 제도는 법률 조항, 판례, 그리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가 결합된 다층적 보호 체계를 통해 그 긍정적 효용을 발휘한다. 이는 의뢰인의 신뢰를 확보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며, 벨기에 법률 문화의 강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7].

제2장. 제도 운영의 한계 및 비판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는 변호사의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내 변호사의 자문까지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3] 그러나 법률의 이론적 토대와 실제 운영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며, 여러 한계와 비판에 직면해 있다. [^27]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적 미비**이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그 내용을 필터링하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성문화된 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4]

이러한 법적 공백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ACP의 실질적 보호를 위협하는 중대한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구제 절차는 압수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24] 이는 비밀 정보가 이미 침해된 후의 구제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벨기에 제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는 ACP 제도의 성공이 단지 법률 조항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28] 법원은 특정 사례에서 ACP 보호를 위한 통제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바 있다. [^29] 이는 형식적인 감독 장치만으로는 ACP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감독 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ACP 제도는 법적 기반과 기본 원칙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의 부재, 사후적 구제 절차의 한계, 감독 메커니즘의 독립성 부족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7], 시대의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입법 보완과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견고한 절차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5]

제6부. 결론: 한국의 사내 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의 연혁, 법적 근거, 운영 실태 및 효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벨기에의 경험은 한국의 사내 변호사를 위한 ACP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전의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련의 권고 사항으로 요약한다.

1. 사내 변호사의 법적 지위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벨기에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사내 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다. 벨기에에는 법률로 사내변호사협회(IJE/IBJ)를 설립하여 사내 변호사에게 독자적인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ACP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했다. 이로써 사내 변호사는 단순한 회사 직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갖춘 규제된 전문직이 되었다. [^30] 한국 역시 성공적인 ACP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에 앞서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사내 변호사를 위한 독립적인 윤리 강령 및 징계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사내 변호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벨기에에서 모든 사내 변호사가 IJE/IBJ에 등록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과 같은 맥락이다. [^31]

2. 명확하고 성문화된 ACP 적용 범위 및 한계 설정

벨기에의 경험은 ACP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현재 벨기에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성문화된 절차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4]

한국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 도입 초기부터 ACP가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요건, 범위, 예외 사유 등을 명확히 성문화해야 한다. 특히 전자증거(e-discovery) 압수수색 과정에서 ACP 보호 대상 정보를 식별하고 분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이나 하위 규정에 명시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ACP를 통한 기업의 방어권 및 준법경영 실질화

벨기에 법원은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단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3]

한국에 ACP가 도입된다면, 기업은 잠재적 법률 리스크에 대해 사내 변호사로부터 솔직하고 충분한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선제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ACP 제도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보호와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4. 법조계 및 기업의 인식 개선과 실무 역량 강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벨기에 사례에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벨기에와 EU 간의 법적 특권 차이 등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 자신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도와야 한다. [^2]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는 물론,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ACP의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실무적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적으로 ACP 보호 대상 문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벨기에의 사례는 사내 변호사에 대한 ACP 도입이 단순한 특권 부여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은 벨기에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ACP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7]

제1장. 벨기에 사례의 종합적 시사점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오랜 역사와 복잡한 법적 논의를 거쳐 발전해왔으며, 이는 ACP 제도의 도입 및 개선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심도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벨기에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교훈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벨기에 제도는 법률의 명문 규정만으로는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기에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분석을 넘어서, 판례의 형성 과정과 법조 윤리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된 것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3]

이는 ACP의 보호 범위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내 제도 설계 시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험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 제도 역시 명백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28] 대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 절차에 관한 명확한 성문 규정이 부재한 법적 공백 상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4]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수사 과정에서 ACP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벨기에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교훈을 남긴다.

- **첫째**, ACP 제도는 의뢰인의 방어권이라는 기본권적 가치와 연계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둘째**,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적 완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 처리와 같은 현대적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벨기에의 강점과 약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견고하고 실효성 있는 ACP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7] [^5]

제2장. 한국의 사내 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안

벨기에의 사내 변호사 ACP 제도 도입 사례는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벨기에에는 유럽연합(EU) 경쟁법 절차와 자국 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법적 특권 적용 범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고, 사내 변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ACP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본 장에서는 벨기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사내 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인프라 확립

성공적인 ACP 제도 도입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벨기에 사례는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벨기에가 사내 변호사를 독립된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갖춘 규제된 전문직으로 격상시킨 것처럼 [^30], 한국 역시 사내 변호사를 위한 독립적인 자격 및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사내 변호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1]. 이는 사내 변호사가 단순한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적인 윤리 의무를 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2단계: ACP 보호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ACP 제도를 입법화하는 단계에서는 보호되는 비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현대적 도전 과제인 **디지털 데이터의 취급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벨기에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 및 필터링을 규율하는 명확한 절차가 부재하여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4].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입법 초기 단계부터 전자 정보 압수수색 시 ACP가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절차(예: 필터링 팀 운영, 특수 마스터 제도 등)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벨기에 국내 절차에서 사내 변호사의 자문이 단순한 '기밀 정보'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된 것처럼 [^3], 한국의 ACP 제도 역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기업의 준법 경영과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3단계: 제도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로펌은 변화된 법적 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의 ACP 제도와 다른 국가 또는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법적 특권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미묘한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언하여 의뢰인의 내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2].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ACP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축적하고 관련 판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내 변호사 ACP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나아가 기업의 준법 경영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보고서는 벨기에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를 그 연혁과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및 운영 효용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5] 벨기에에는 다층적 보호 체계를 통해 ACP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내 변호사의 자문까지 그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피고

인의 '방어권'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3] 이는 ACP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기본권적 성격을 가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ACP 제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의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및 필터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은 심각한 법적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4]

이러한 입법적 미비는 ACP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7]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언한다.

- **첫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벨기에에서 진행 중인 입법 동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본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벨기에 헌법재판소 및 기타 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ACP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
- **셋째**, 벨기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ACP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법률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는 입법 전략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언의 기초를 제공한다. 벨기에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국은 보다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ACP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L'arrêt AKZO: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refuse d'étendre aux juristes d'entreprise la protection du secret professionne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ecla.online/wp-content/uploads/2017/12/larret-akzo-ecla.pdf> [^2]: SECRET PROFESSIONNEL SYNTHÈSE - Comité de Vigilance en Travail Socia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omitedevigilance.be/IMG/pdf/secret_professionnel_synthese_maj_2019.pdf [^3]: Respecter et intégrer les aspects légaux liés à la protection et à l'accessibilité des données professionnelles - 2. La viol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Cours UNJF,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cours.unjf.fr/file.php/133/Cours/D13-Lasserre-Jeannin-module/co/S2-P1-A-2.html> [^4]: Confidentialité des consultations des juristes d'entreprise : proposition de loi adoptée à l'Assemblée | Lexis Veille,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lexisveille.fr/confidentialite-des-consultations-des-juristes-dentreprise-proposition-de-loi-adoptee-lassemblee> [^5]: Hoofdstuk 3 - Het beroepsgeheim - Orde van Vlaamse Balie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ordevanvlaamsebalies.be/nl/kennisbank/deontologie/codex-deontologie-voor-advocaten/hoofdstuk-1-essentiele-plichten/hoofdstuk-3-het-beroepsgeheim> [^6]: Loi du 22/08/2002 relative aux droits du patient - Etaamb,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etaamb.openjustice.be/fr/loi-du-22-aout-2002_n2002022737.html [^7]: Hoofdstuk 3 - Het beroepsgeheim - Orde van Vlaamse Balie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ordevanvlaamsebalies.be/nl/kennisbank/deontologie/codex-deontologie-voor-advocaten/hoofdstuk-1-essentiele-plichten/hoofdstuk-3-het-beroepsgeheim> [^8]: Reconnaissance de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 Elegi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elegis.be/fr/nouvelle/reconnaissance-de-la-confidentialite-des-avis-des-juristes-dentreprise> [^9]: La Cour de Cassation confirme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eubelius.com/fr/nouvelles/la-cour-de-cassation-confirme-la-confidentialite-des-avis-des-juristes->

[dentreprise](#) [^10]: Reconnaissance de la confidentialité des avis des juristes d'entreprise - Elegi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elegis.be/fr/nouvelle/reconnaissance-de-la-confidentialite-des-avis-des-juristes-dentreprise> [^11]: Arrêt n° 596/15 Ch.cC du 8 juillet 2015. (Not. : 16524/14/CD) La chambre du conseil de - Data.lu,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data.public.lu/fr/datasets/r/685fb9f9-e8c7-4908-b9a0-22d0d7acb179> [^12]: SECRET PROFESSIONNEL SYNTHÈSE - Comité de Vigilance en Travail Socia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comitedevigilance.be/IMG/pdf/secret_professionnel_synthese_maj_2019.pdf [^13]: Loi « Droits du patient » - FPS Public Health,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health.belgium.be/sites/default/files/uploads/fields/fpshealth_theme_file/patientenrechten_folder_fr_internet_0.pdf [^14]: Comment savoir si le professionnel à qui je me confie est tenu au secret professionne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droitsquotidiens.be/fr/question/comment-savoir-si-le-professionnel-qui-je-me-confie-est-tenu-au-secret-professionnel> [^15]: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état de la question - Le blog de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patrick-henry.avocats.be/sites/default/files/Journ%C3%A9e%20europ%C3%A9enne%20de%20l'avocat%20secret%20professionnel.pdf> [^16]: 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rapide tour d'horizon autour d'une triple thématique(1) - ORBi,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orbi.uliege.be/bitstream/2268/221405/1/Secret%20professionnel%20de%20l'avocat%20.pdf> [^17]: Le fondement et la portée du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dans l'intérêt du client,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jeanpierre-buyle.avocats.be/sites/default/files/Le%20fondement%20et%20la%20port%C3%A9e%20du%20secret%20professionnel%20de%20l'avocat%20dans%20l'int%C3%A9r%C3%AAt%20du%20_01524328.pdf [^18]: Advance Care Planning: anticiperen op een betere zorg voor uw palliatieve patiënten,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riziv.fgov.be/nl/professionals/individuele-zorgverleners/artsen/verstrekkingen-door-artsen/advance-care-planning-anticiperen-op-een-betere-zorg-voor-uw-palliatieve-patienten> [^19]: Sanctions spécifiques - Santé Publique - Belgium.be,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organesdeconcertation.sante.belgique.be/fr/documents/sanctions-specifiques> [^20]: Hoofdstuk 3 - Het beroepsgeheim - Orde van Vlaamse Balies,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ordevanvlaamsebalies.be/nl/kennisbank/deontologie/codex-deontologie-voor-advocaten/hoofdstuk-1-essentiele-plichten/hoofdstuk-3-het-beroepsgeheim> [^21]: Code de déontologie de l'avocat | AVOCATS.BE,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avocats.be/fr/actualites/code-de-deontologie-de-lavocat> [^22]: Code de déontologie de l'avocat | AVOCATS.BE,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avocats.be/fr/actualites/code-de-deontologie-de-lavocat> [^23]: Advance Care Planning: anticiperen op een betere zorg voor uw palliatieve patiënten,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riziv.fgov.be/nl/professionals/individuele-zorgverleners/artsen/verstrekkingen-door-artsen/advance-care-planning-anticiperen-op-een-betere-zorg-voor-uw-palliatieve-patienten> [^24]: Point d'actualité sur 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cnb.avocat.fr/fr/actualites/point-dactualite-sur-le-secret-professionnel-de-lavocat> [^25]: Secret professionnel des avocats : faut-il une nouvelle loi pour renforcer sa protection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Secret-professionnel-des-avocats,18408.html> [^26]: Document parlementaire n° 2-1250/3,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www.senate.be/www/?MIval=publications/viewPub.html&COLL=S&LEG=2&NR=1250&VOLGnr=3&LANG=fr> [^27]: Nuttige tips voor de advocaat die het voorwerp wordt van een huiszoeking - Elfri,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elfri.be/nuttige-tips-voor-de-advocaat-die-het-voorwerp-wordt-van-een-huiszoeking> [^28]: Avis relatif aux soins palliatifs, à l'euthanasie et à d'autres décisions médicales concernant la fin de vie - Ordomedic,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ordomedic.be/fr/avis/deontologie/consentement-eclair/avis-relatif-aux-soins-palliatifs-a-l-euthanasie-et-a-d-autres-decisions-medicales-concernant-la-fin-de-vie> [^29]: Mortier c. Belgique - HUDOC, 7월 18, 2025에 액세스, <https://hudoc.echr.coe.int/fre?i=002-13801> [^30]:

Gebruik uw titel van bedrijfsjurist! - IBJ - IJE,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ibj.be/nl/nieuws/gebruik-uw-titel-van-bedrijfsjurist/> [³¹]: Le secret professionnel de l'avocat : rapide tour d'horizon autour d'une triple thématique(1) - ORBi,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orbi.uliege.be/bitstream/2268/221405/1/Secret%20professionnel%20de%20l%27avocat%20.pdf>